

# 과수원 배 나뒹굴고 가두리 양식장은 썩대밭

### ■ 삶의 터전 휩쓸고 간 태풍 '미이파'

#### 추석 앞둔 나주배 농가 20~30% 피해 절경 진도 관매도 해변은 쓰레기 천지 완도 신지초 벽돌담 150m '와르르'

강풍을 동반한 제9호 태풍 미이파가 활취고 지나간 상처는 컸다. 태풍은 아까운 목숨을 앗아갔는가하면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삼켜 피해 주민들은 실의에 빠졌다.

과수원과 양식장이 초토화돼 피해 규모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인명피해 속출=8일 오후 1시께 진도군 조도면 서거차항 인근 해안가에서 전날 실종된 것으로 알려졌던 김모(72)씨가 뒤집힌 0.8급 소형 어선 안에 숨겨 있는 것을 해경이 발견했다. 김씨는 지난 7일 밤 9시께 서거차항 인근 해상에서 생필품을 사고 하쪽으로 돌아오던 중 어선이 뒤집히는 바람에 변을 당했다.

또 지난 7일 오후 5시 40분께 완도군 고금면 덕동리 선착장에서 김모(75)씨가 11짜리 배를 정박시키려다가 파도에 휩쓸려 1시간여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3시간 뒤에는 화순군 한천면 한 계곡에서 종교 단체 수련회에 참가 중이던 박모(여·50)씨가 급류에 실종됐다가 8일 오전 숨진 채 발견됐다.

또 여수·광양·해남·신안 등에서는 33가구 60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추석이 코 앞인데="태풍으로 삶의 터전이 송두리째 날아가 버렸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복구해 나갈지 걱정입니다."

8일 오전 나주시 금천면 한 배 과수원, 이날 새벽까지 계속된 강풍과 비로 과수원은 썩대밭이 돼 있었다.

과수원 바닥에는 강풍을 견디지 못하고 떨어진 배들이 여기저기 나뒹굴고 있었다. 수백 그루의 나무에서 떨어진 배들로 과수원에 발을 내딛기조차 힘든 상태.

아직 나무에 붙어있는 배들도 곧

바닥에 떨어질 듯 위태로운 모습이였다. 1년 동안 애지중지 키워온 배가 추석을 불과 한 달 앞두고 피해를 입자 농가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이었다.

배 재배농 김모(58·나주시)씨는 "자식만큼 귀하게 키운 배가 바닥에 날브러져 있는 걸 보니 속이 타들어 가는 것 같다"며 "2주만 더 기다렸으면 추석에 맞춰 수확할 수 있었는데..."라며 안타까워했다. 나주에서는 이번 태풍으로 2000여 배 재배농가 2800ha 가운데 20~30% 가량이 피해를 본 것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다.

순천과 여수, 보성에서는 논밭 341ha가 침수됐으며, 전남 곳곳에서 비닐하우스 382개동이 파손됐고, 순천에서는 오리 1만여마리가 폐사했다.

같은 날 오후 광주시 남구 승촌동 비닐하우스 단지도 태풍의 영향력을 실감케 했다. 비닐하우스 곳곳이 비바람에 찢기거나 구멍이 뚫려 있었고, 일부는 힘없이 허물어져 있었다.

◇양식장 초토화=태풍은 농촌 뿐만 아니라 어촌에도 쉽게 아물지 않을 상처를 남겼다. 완도에서는 85개 어가의 전복 가두리 양식장이 강풍에 망가지면서 전복이 대량 유실됐다. 장흥과 진도에서도 어류 양식장과 종묘 배양장이 파손됐다.

어름 휴가철 특수를 기대했던 해수욕장 등 피서지도 태풍에 만신창이가 됐다. 신안군 임자면 대광해수욕장 일대 상가는 전날 밤 정전으로 수족관에 보관중이던 어패류가 모두 죽어 버렸다. 진도군 조도면 관매도해수욕장은 여기저기서 떠밀려온 썩대밭이 되었다. 해수욕장으로 통하는 전남 지역 도로 곳곳이 유실돼 폐허를 방불케 했다.

◇날이간 간판, 학교도 상처=광주



해변으로 떠밀려 온 '가두리'

8일 완도군 보길도 종리해수욕장에 전날 태풍으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폐허가 된 전복 양식장 시설물 이 떠밀려 와 있다. /서부취재본부=정은조기자 ejchung@kwangju.co.kr



8일 나주시 금천면 죽전리 한 배 과수원에 전날 강풍을 동반한 태풍으로 떨어진 배가 어지럽게 널려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8일 강풍으로 무너진 광주시 남구 승촌동 비닐하우스에서 한 농민이 망연자실한 표정을 짓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도심 역시 태풍으로 인한 상처는 깊었다. 7일 오후부터 8일 새벽까지 광주 지역에서는 총 100여개의 창문과 간판이 강풍에 떨어져 나가거나 파손됐다. 태풍은 학교도 예외없이 활취고 지나갔다. 광주 수창초와 충장중은 지붕이 날아가는 피해를 입었다. 전남에

외벽이 떨어져 나갔으며 영암 미암초는 조립식 차고도 반파됐다. 이와 함께 강한 바람에 비가 동반하면서 지난 7일 오후 광주시 동구 금동면 도로에서 택시기사의 충돌사고도 있었다. 이 사고로 한 택시가 광주전변으로 추락해 4명이 부상하는 등 곳

곳 크고 작은 교통사고도 이어졌다. 한편 광주·전남 전 지역에 내려졌던 태풍 경보와 바다를 건너 전남 16개 시·군의 폭풍 해일경보는 모두 해제됐다.

/나주=김호·정철원기자 kimho@서부취재본부=정은조·박현영기자

## 나원침 (8375) 김중두



### 슬값 시비 선장 흥기로 찢러

완도해양경찰은 8일 슬값 시비 끝에 선장을 흥기로 찢러 상처를 입힌 한해사 고모(50)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해경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 7일 밤 10시께 완도항 제3부두에 정박 중이던 부산 선적 228급 어획물 운반선 H호 조타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선장 조모(44)씨의 왼쪽 어깨를 흥기로 찢른 혐의를 받고 있다.

/서부취재본부=정은조기자 ejchung@

### 과한에 신용카드 빼앗겨

8일 새벽 1시께 광주시 서구 화정동 모 아파트 앞 인도에서 20대로 추정되는 과한이 흥기로 K(여·28)씨를 위협, 신용카드 2장과 현금카드 2장을 빼앗아 도주했다. K씨는 경찰에서 "혼자 집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는데, 남성이 갑자기 흥기를 들이밀며 지갑에 들어있던 카드를 모두 빼앗았다"고 진술했다. 카드를 빼앗은 과한은 약 30분 뒤 남구 월산동 한 현금출금기에서 돈을 찾으려고 했으나 K씨가 카드 사용을 정지해 인출에 실패했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 여제자 상습 성추행 교장 파면

### 전남도교육청

학교 여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남 모 여고 K(57) 교장(광주일보 6월 16일 6면)이 파면됐다. 전남도교육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 여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남 모 여고 K교장을 파면 조치했다고 8일 밝혔다.

K교장은 지난해 4월부터 1년여간 자신의 관사에서 여제자인 A(17)양

에게 유사 성행위를 시키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K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돼 불구속 상태이며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조만간 K교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해당지역 시민사회단체 회원 등은 전남도교육청 앞에서 썩대밭의 구속 등 처벌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 이주여성이 시어머니 독살 미수

### 경찰 영장 신청에 법원 기각

20대 이주여성이 시어머니를 살해하려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남부경찰은 8일 음식에 극약을 타 시어머니를 살해하려 한 베트남 출신 이주여성 A(23)씨를 존속살해 미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오전 10시께 광주시 남구 월산동 자신의 집에서 밤에 극약을 섞어 넣어 시어머니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호기자 kimho@

A씨의 범행은 밤에 극약이 섞인 사실을 시어머니가 눈치채면서 미수에 그쳤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평소 한국어에 서툰 자신을 시어머니가 무시하고, 자주 꾸지람을 했다는 이유로 집에 보관중이던 극약을 이용,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고, 시어머니의 처벌의사가 뚜렷하지 않다"는 이유로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김호기자 kimho@

## 임건우 전 보해회장 영장 발부

### 광주지법

광주지법 영장전담 이재석 부장판사는 8일 불법대출 등을 통해 보해저축은행 부실을 키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상 배임 등)로 이 은행 대주주인 보해양조 임건우(64) 전 회장에 대해 검찰이 두 번째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회장은 지난 1월과 2월 사이

보해저축은행 유상증자 과정에서 어음 양도 등 방식으로 자금을 끌어들이 보해양조에 420억원 가량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임 전 회장은 또 보해저축은행으로 부터 160억원을 차명으로 대출받고 보해양조 자금 80여원을 횡령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3월 한 차례 영장이 기각되자 이튿날 곧바로 영장을 재청구해 법원과 신경전 양상을 보였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 "슬리퍼도 명품아" 식당서님의 것 썩쩍



○음식점에서 자신의 신발 대신 다른 손님의 '명품 슬리퍼'를 신고 나간 20대 회사원이 경찰서행.

○8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윤모(26)씨는 지난달 1일 밤 11시50분께 광주시 서구 한 감자탕집에서 15만원 상당인 유모(26)씨의 명품 슬리퍼를 신고 나갔다는 것.

○경찰조사 결과 감자탕집에서 지인과 식사를 마친 윤씨는 우연히 신발장에서 유씨의 고급 슬리퍼를 발견하고 이 같은 일을 저질렀는데, 자신이 사용한 신용카드를 추적한 경찰에 들미.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 선배 합격자가 말한다!

## 공무원 시험준비는 무조건 한빛고시학원에서 시작하라!

### 9월 9일 1일 9급 공무원 시험 [지방직] 최다 합격! 분명한 강좌!

수강자 전원 반복학습 동영상 강의를 지원함으로써 100%합승증대와 경제적인 학습효과를 누리보십시오

<b>7급 종합반</b>	<b>9급 종합반</b>	<b>법원사기보</b>	<b>지방소방직(전면)</b>	<b>명품 '강력단과'</b>	<b>7.9급 검찰직</b>	<b>9급 아간반</b>	<b>농업직/기술직</b>	<b>사회복지직</b>	<b>부시관(공무원)</b>
8월 14일~16일 3일간 10월 10일~12일 3일간	8월 14일~16일 3일간 10월 10일~12일 3일간	8월 14일~16일 3일간 10월 10일~12일 3일간	8월 14일~16일 3일간 10월 10일~12일 3일간	8월 14일~16일 3일간 10월 10일~12일 3일간	8월 14일~16일 3일간 10월 10일~12일 3일간	8월 14일~16일 3일간 10월 10일~12일 3일간	8월 14일~16일 3일간 10월 10일~12일 3일간	8월 14일~16일 3일간 10월 10일~12일 3일간	8월 14일~16일 3일간 10월 10일~12일 3일간

개강 9월 1일

공무원 합격의 대세! 압도적 1위! www.hanbitgosi.co.kr

# 한빛고시학원

광주 전남대 후문 북구청앞 (062)234-0234

직영학원 김영관입학원 (광주 동부경찰서 뒤) 227-8088